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최성일*

1. 시작하는 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John Ross)가 주도하여 번역했다고 하여 『로스역』으로 불리는 신약 성서(1887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주로 국문학이나 어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했다.¹⁾ 한국 교회사에서는 성서 번역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였으며,²⁾ 대한성서공회의 역사도 번역 과정과 출판, 반포에 중심을 두고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유창균, “국역 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 - 특히 어휘의 개신면을 중심으로,” 『동서문화』 창간호 (1967); 김영덕, “언해문체와 성서 번역체와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 (1969);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양문학 이입사연구 1 (서울: 을유문화사, 1975); 최태영, “초기번역성경연구,” 『승전대학교논문집』 13 (1982); 이응호, “최초의 한글성경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 45 합병호 (1983); 박창해, “로스 <예수성교전서>에 쓰인 한국어의 문법 구조,”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최태영, “초기번역성경연구 II,”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는 I부 “한글 성서와 어문학”의 분야 13편의 논문에서 번역 성서들을 어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II부 “그리스도교회 역사와 문화”의 분야에 9편을 논문을 통해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번역 성서의 문제를 다룬다.
- 2) 김양선, “한국기독교초조기간행물에 대하여,” 『사총-김성식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2, 13 (1968); 나채운, “국역 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성서 국역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4 (1971); 이원순, “성서국역사논고,” 『민족문화-원봉

『로스역』을 취급한다.³⁾ 『로스역』이 낱개의 연활자로 인쇄한 한글 서적들 중 가장 초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물론 국어학계와 출판 역사에서도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그런데 『로스역』 신약 성서 중 1882년에 제일 먼저 출판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합본으로 1883년에 약간 개정되어 출판되었으며,⁴⁾ 1887년에 신약 전서가 완간될 때 일부 수정되었다. 1882년부터 출판되어 반포되기 시작한 『로스역』은 초기 한국 교회의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로스역』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1887년에 새로운 성서의 번역을 결정한다. 다만 그들은 『로스역』의 사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로 아펜젤러가 누가복음을 개정하여 1890년에 출판하였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거의 모든 선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번역되던 누가복음은 『로스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네 가지 번역본은 『로스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일 것이다. 단, 어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로스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유봉영 선생 팔순기념특집호 3 (1977); 박창환, “한글 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4 (1971); 민영진, 『국역 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특히 성서 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 (1992). 이 논문은 필자의 Edinburgh 대학 신학부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기고한 것이다. Sung-il Choi, “John Ross(1842-1915)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h. 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학위 논문은 로스의 번역을 누가복음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 3)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23-119;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142-156.
- 4)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NBSS: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의 지원으로 각 3,000권 씩 출판되었으며, 1883년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본 출판부터는 대영성서공회(BFBS: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로스역』 출판을 담당한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주기도문 번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특성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로스역』의 주요 저본들을 밝히려고 한다. 로스 자신은 개정 헬라어 성서를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인 번역자들이 헬라어는 물론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몰랐다는 전제 아래 중국어 성경이 저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의 한글 성서의 저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물론 성서 번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국 선교사들이 1887년에 『로스역』 폐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1904년 이전까지는 완역된 신약 성서가 없었으며, 1889년 이후에도 27,000권의 『로스역』 단권 성서가 발행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초기 한국 교회의 기틀이 형성되는 기간이었으며, 이것은 『로스역』 신약 성서가 한국 개신교의 밑거름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스역』의 저본을 밝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2. 번역 성서 이전 문서에 나타난 특징들

로스는 한글 성서 번역을 하기 위해 1876년 이응찬을 어학 선생으로 고용하고, 1877년에 한국어 교재인 『Corean Primer』를 출판했다.⁵⁾ 33과로 구성된 이 어학 교재는 로스가 1876년에 출판했던 43과의 중국어 교재 『Mandarin Primer』와 흡사한 내용과 형태로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초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⁶⁾ 『로스역』을 국어학의

5) John Ross, *Corean Primer: being Lessons in Corean on All Ordinary Subjects, Transliterat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ndarin Primer, by the Same Autho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6) John Ross, *Mandarin Primer: being Easy Lessons for Beginners, Transliterated to the European Mode of Using Roman Letter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6).

발전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히 참고해야 할 기초 자료이며, 32과의 도덕과 33과의 영혼에 사용된 문장들은 한국 선교를 염두에 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에 의한 출판물이 직지심경이라면, 상해에 있던 미국 장로회 선교부 출판사에서 인쇄한 『Corean Primer』는 아마도 낱개의 연활자를 주조하여 조판하고 출판한 최초의 한글 책일 것이다.⁷⁾ 그 후 일본에서 제작한 활자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1881년 가을에 인쇄하는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은 기독교의 복음을 간략하게 해설한 전도용 문서이자 교리 문답서이다. 하나님과 성경과 창조에 대한 19항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예수성교문답』은 스코틀랜드교회의 요리 문답서 일부를 로스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예수성교요령』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837-1905년)가 한국인 번역자들의 도움으로 번역한 것으로 신약 성서의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문서이다.⁸⁾ 이 문서들은 1882년 출판된 누가복음과 함께 전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해는 물론 기독교 복음의 이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들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rean Primer』

육신은반드시주거도영혼은죽디안닌다

7) 『Corean Primer』는 영어로 된 한국어 입문서로서는 최초이며, 존 로스(John Ross)의 한국사는 영어로 저술된[John Ross, *History of Korea* (Paisley: J.&R. Parlane, 1879)] 최초의 역사서로 알려졌다. 33과로 구성된 이 교재는 활자의 오류 때문에 마지막 장이 23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47도 이 책이 23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8) 성서를 인쇄하기 전에 시험본으로 출판한 두 문서들은 각기 4쪽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내에 있는 대영성서공회 고문서도서실에 보관되어 있다. 전문의 내용은 어문학 발전과정의 연구는 물론 『로스역』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로 전문이 『대한성서공회사 I』, 63-65에 수록되어 있다.

령혼이지보지귀한거시디비서나지못하갓다
이를하미가이난심을어글러티지안습머니

『예수성교문답』

문: 하느님이 뉘뇨

답: 녕하고어를업서보디못하니처음과마즈막업고능티아느미업스니하느
님의 총명은측냥업서아디못하리라

문: 하느님이 무어슬아너뇨

답: 사람의심사과형사과숨겨흐난일과발키흐난일을다아너니라

문: 넷언약칙에무어슬기록흐엿너뇨

답: 이세계와만물과사람이죄여범한것과홍슈와쑈도를기록흐니라

문: 무슨분부를어그러텨너뇨

답: 하느님이 데의즐거운동산을예비하여동산안각식실과를사람으로하여
금디키며그실과를다먹게하되그등에한남게체를먹디말라하니라

『예수성교요령』

...예수 올라갈적여테자덜의게분부하시되나죽엇던곳에니르러하느님이
감동하시기를기디리라흐시니테자덜이명받은디뎛날안이흐여하느님이 감
동흐니예수 이왕흐시던말삼이넉넉키명빅흐고쑈테자덜이턴하각국말을능
통흐난디라이런고로테다덜이각국에단니며도를던흐며말흐기를턴하에예
수 이외여는능이죄를샤흐며사람을구완흐난자업너니라흐여시니턴하에허
다만민이예수의 교를좃차구완을엇으니이는다사도형던에잇난거시라

세 문서에 나타난 특징은 『로스역』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Corean Primer』는 현대 한국어 정서법처럼 가로 쓰기를 하지만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은 세로로 내려 쓰기를 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 뒤에서는 ‘뒤 띄어쓰기’를 하지만, 모든 문장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발음 되는 대로 적으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Corean Primer』의 마지막 것이다. 현대어로 표기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것들이다. “일을 하매 가히 양심을 어그러트리지 않습니다.” 영어

로 표기한 의미로 본다면, “사업을 하면서 양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Mandarin Primer』의 “做事不可虧良心”의 번역으로 서로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이응찬으로 추정)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엿보인다.

『로스역』이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령혼이지보지귀한거시디비서나지못하갓다”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비서나지’는 분명 ‘버서니지’의 오타로 보이는데, ‘령혼’과 같은 두음 법칙에 어긋나는 표기를 당시의 문법체계에서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영혼이 지보지귀한 것이지 벗어나지 못하갓다”로 고쳐놓고 보아도 “지보지귀(至寶至貴)”와 같은 용어는 평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영혼은 가장 귀한 것이다”(靈魂至寶至貴的), “환생할 수 없다”(脫生不了)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번역자의 실수이거나 한문 독해 능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은 『예수성교문답역』의 문장들은 이해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듯 보인다. 다만 “녕하고어를업서보디못하니”는 하나님은 “神靈하고 지음받은 바(於律)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이 문장들 속에서 발견되는, ‘보디’(보지), ‘능티’(능치), ‘아디’(알지), ‘테의’(저의), ‘딤키게’(지키게), ‘그뉘에’(그중에), ‘떡디’(먹지) 등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평안도식 표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약간의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수성교요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스역』에서도 여전한데, 이것은 『로스역』을 배척한 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어문학의 문외한의 눈으로 볼 때, ‘~와’나 ‘~과’의 연결사가 원칙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처음과마즈막’, ‘심사(心思)과형사(行事)과숨겨흐난일과발키흐난일’, ‘세계와만물과사람’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한남게’는 ‘한 나무에’라는 뜻으로 ‘남’라는 고어체를 사용한 것이다. 『로스역』에는 이러한 고어체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계속 사용 불가라

고 도전한다. 그리고 ‘ㄷ’ 등과 같은 합용병서⁹⁾ ‘·’ 같은 자음 사용¹⁰⁾에 대한 어학적 연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역』은 다양한 한국인 번역자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성서의 연구의 결과를 『로스역』 전체의 특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로스역』이 한국 교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신의 칭호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칭호는 『예수성교문답역』과 『예수성교요령』에서 ‘하느님’으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1882년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1883년부터는 ‘하나님’을 사용한다. 1890년 『아펜젤러역』 누가복음은 ‘하느님’을 사용하여 구역 신약 성서가 출판되는 1904년까지 ‘하나님’과 ‘하느님’ 사이의 신명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어의 문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ㅏ’와 ‘·’의 교차 사용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성서 번역을 위한 것이었던 일반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것이었던, 로스가 『한국사』를 저술하며 이해한 한국인의 전능한 신의 이름은 하나님(Hannoin)이었다.¹¹⁾ 성서를 번역하기 이전에 ‘상제’ 이외에 한국에 가톨릭에 의한

- 9)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242-248에서 15세기 중기부터 1930년 대까지 나타나는 합용병서의 예들은 『로스역』이 터무니없는 평안도식 표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10) 최태용, “초기 번역 성서 연구 II,” 296-297에서 『로스역』은 ‘ㅏ’와 ‘·’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만 예들을 들기 때문에, 『로스역』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11) 로스는 [한국사]의 11장 종교 편을 신명의 설명으로 시작한다. “한국인들은 절대자(Supreme Being)에 대한 하나의 토착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중국어에서 빌려왔다. 전자는 하늘이라는 ‘hanul’에서 온 ‘Hannonim’이며 후자는 상제이다. ‘Hannonim’이란 명칭은 아주 독특하고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번역과 설교에서, 비록 천주교도들(the Romanists)이 중국에서 채택했던 명칭을 소개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선교사들 사이에 오래 전에 발생했던 끝사나운 시시한 논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Hannonim’이란 용어가 전하는 개념은 전능하고(Almighty), 무소부재(the all-present)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위한 대중적인 중국식 명칭인 “Tien laoye”의 개념과 아주 흡사하다.”(John Ross, *History of Korea*, 355); 여기에서 “Tien laoye(天老爺)”는 하늘과 신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 “老天爺”의 이기(異記)인 듯 보인다.

‘천주’로 소개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토착 명칭을 찾아낸 로스의 노력은 한국 개신교의 신명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이렇듯 『로스역』 신약 성서 번역에 대한 연구는 번역문 자체만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성서 번역의 준비 과정부터 개정 작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로스 번역에 영향을 준 것을 든다면, 1880년 일본 요코야마에서 출판된 『韓佛字典』일 것이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영국으로 건너가 한글 성서의 출판을 허락받기 위해 스코틀랜드성서공회(NBSS)와 대영성서공회(BFBS)를 찾아다니던 로스 대신에 2년 동안 번역 작업을 지휘했던 매킨타이어는 한국어 어휘집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 고전의 언해본을 구입하고, 한불자전까지 입수하여 어휘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¹²⁾ 그렇다면 이 문서들 속에서 사용된 어휘나 문법 체계 등을 『로스역』의 번역문과 비교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로스역』 주기도문에 나타난 특징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개역).

아바니아 아바니 일음으로 성을 삼게 하시며 나라이 남호소서 쓰넌빅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문 우리 쏘한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주미니이다 우리를 미혹에 인도티 말오소서(1882년).

아반이 아반이 일흠이 성하시며 나라이 남호시며 우리 쓰난바 양식을

12)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51-53;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501-502.

날마당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문 우리 또한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주미니이다 우리를 미혹에 인도치 말소셔(1883년).

아반이 아반이 일흠이 성히시며 나라이 님히시며 우리 쓰느바 낭식을 날마당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문 우리 또한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주미니이다 우리를 미혹에 인도치 말소셔(1887년).

위에 소개한 『로스역』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¹³⁾ 성서의 번역과 개정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1938년에 출판된 『개역』의 주기도문과¹⁴⁾ 『로스역』을 비교해보면, 『로스역』의 번역 수준이 비교적 정확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두 역본의 저본은 모두 『개정역』이 분명하다. 그런데 『로스역』 누가복음은 첫 출판 이후 1년 만에 재판할 때 한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1887년 신약 성서에 합본될 때,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내용의 변화 없이 표기상의 수정이지만, 다음 도표에서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로스역』을 개정하여 1890년에 출판된 『아펜젤러역』 누가복음과 『로스역』(1887년) 마태복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자<표 1>.

<표 1>

1882년	1883년	1887년	1887년 마태	1890년
아바니아 아바니	아반이 아반이	아반이 아반이	아바님	아버지야
일음으로	일흠이	일흠이	일흠이	일흠이
성을 삼게 하시며	성히시며	성히시며	성히시며	거룩히옵시며
낭식을	낭식을	낭식을	음식을	량식을
죄를	죄를	죄를	(빛을)	죄를
우리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13) 원 『로스역』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이곳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였다.

14) 여기에서 인용된 주기도문은 1956년 이후의 『개역』의 본문이다. 1938년의 본문과 철자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진자를	진자를	진자를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인도티	인도치	인도치		인도히지

1890년 누가복음에 의하면 당시에도 ‘아버지’가 표준어였다고 할 수 있는데, 『로스역』 누가복음은 ‘아반이’를 사용했다. 단, 1882년 역의 ‘아바니아 아바니’는 호격 ‘-야’를 붙인 평안도식 발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방언 표기라기보다는 고유어 채택의 경우로 볼 수도 있다. 다만 1887년 마태복음에서는 ‘아바님’이라는 존칭 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의 번역자와 마태복음의 번역자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고유명사 간의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이름’으로 표기하는 ‘일흠’을 1882년 역은 ‘일음’으로 발음되는 대로 적은 것 같다. ‘량식’도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았던 ‘냥식’이라는 평안도 방언 식으로 표현했다. 다만 ‘냥식’이 1887년 역에서만 ‘냥식’으로 수정된 것은 ‘죄를’과 ‘진자를’과 ‘우리를’의 표기와 함께 당시의 서울식 표기법을 따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1887년 마태복음은 ‘양식’을 ‘음식’으로 ‘죄’를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이하다. 1882년 역의 ‘인도티’도 구개음화를 무시한 평안도 방언이지만, 1883년 역 이후에는 표준 표기인 ‘인도치’로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자어를 사용하여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가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성(聖)을 삼게 하시며’가 그 경우이다. 1883년과 1887년 역(심지어 1887년 마태까지도) ‘성하시며’로 수정하는 이 문장은 1890년의 『개정역』에 가서야 ‘거룩하옵시며’로 번역된다. 하지만 ‘일음으로 성을 삼게 하시며’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었다면, ‘일흠이 성하시며’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 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로스역』 누가복음을 개정했다는 1890년 『아펜젤러역』은 『로스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펜젤러역』의

주기도문은 완전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펜젤러는 『로스역』 누가복음을 개정하면서 전혀 다른 저본을 참조했거나, 마태복음의 본문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 같다. 1887년 『로스역』 마태복음과 1890년 『아펜젤러역』을 비교하면 그것이 확실하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 아바님의 일흠이 성하시며 아바님 나라이
 님하시며 아바님 뜻이 쌓에 일우기를 하늘에 hing심갓치 하시며 쓰는
 바 음식을 날마당 우리를 주시며 사름의 빛사함갓치 우리 빛을 사하
 시며 우리로 시험에 드지안케 하시며 오직 우리를 악에 구완하여 너
 소셔(1887년, 로스역).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네 일흠이 거룩하옵시며 네 나라히 림하
 시며 네 뜻시 하늘에서 일우시듯 짜희셔도 일우옵시며 오늘날 우리
 쓰는 량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념의 죄를 사하여 준것갓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하여곰 시험에 인도하지 마옵시며 다만 우리
 를 악흔디셔 나오게 하옵쇼셔(1890년, 아펜젤러역).

분명히 아펜젤러의 『개정역』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 아펜젤러는 『로스역』이 따르고 있던 『개정역』(*Revised Version*) 헬라어 성서가 아니라 『흠정역』(*Authorized Version*)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로스역』을 미국 선교사들이 거부한 진정한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곳에서 『로스역』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의 것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로스역』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당시까지 출판된 가톨릭 문서나 『이수정역』 성서에서 2인칭 대명사가 ‘너’로 사용되는 반면에, 『로스역』은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위사람은 직접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그래서 아펜젤러는 ‘네 일흠’, ‘네 나라’, ‘네 뜻’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바님

15) 인칭 대명사에 대한 분석은 서정수,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183-184를 참조하라.

의 일흠’, ‘아버님의 나라’, ‘아버님의 뜻’으로 의역했다. 『로스역』이 인칭 대명사 대신 존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의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경우는 15:29과 20:38이다. “thou never gavest me a kid”(눅 15:29)에 대한 현대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아예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번역하지만, 『로스역』은 “아반이 양의 식기를 주워... 업너니”로 번역하여 ‘thou’를 ‘아반이’로 의역하며,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20:38)은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안이요 산자의 하나님”¹⁶⁾이라고 번역하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인칭 대명사에서 두드러지는데, 『흠정역』 영어 성경의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99회(개정역은 86회)가 사용되지만, 『로스역』은 직접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를 각각 219(1882년 역), 231(1883년 역), 226(1887년 역)회나 반복하여 사용한다. 예수라는 이름의 반복적인 사용은 구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¹⁷⁾

4. 로스 번역의 특징

이상에서 열거한 『로스역』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종합 비교하면, 1) 평안도 사투리 표현이 많다, 2)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사용한다, 3)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 4) 서울 지역에서는 드물게 사용하는 고어체가 발견된다, 5) 신조어나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다.

16) 『개역개정』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번역하며, 『새번역』도 이와 흡사하다.

17) 누가복음의 인칭 대명사 사용 회피는 Sung-il Choi, “John Ross(1842-1915)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231-232를 참조하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특징들은 『로스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로스역』이 사용한 신조어나 생소한 용어들은 전문적인 신학 용어나 성서 용어이기 때문에, 첫 번역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로스는 현명하게도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884년 판 마태복음 뒤에 “강명편”이라는 용어 해설란을 붙여 생소한 용어 문제를 해결했다.¹⁸⁾ 레이놀즈(W. D. Reynolds)가 열거하는 『로스역』 포기 사유는 과장된 문체, 지나친 한자투, 사투리 표현, 빈번한 오역, 과장한 철자와 거친 활자 등이다.¹⁹⁾

1887년 조직된 상임 성서 번역 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한 사유들은 『로스역』의 실제 번역자가 외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이었다는 판단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장한 철자와 거친 활자는 활자의 주조 기술이 낙후되었던 시절 나무판을 파서 연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서 자체의 폐기를 좌우할 사안이 아니었으며, ‘빈번한 오역’은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히기 어렵다. 상임 성서 번역 위원회가 주장하는 ‘빈번한 오역’의 사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로스역』과 『아펜젤러역』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한자 투는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들을 중부 지방의 식자층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결코 ‘지나치게’ 한자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평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 사용은 『로스역』의 번역 원칙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펜젤러역』 누가복음이나 『성경전서』(1906/1911년) 신약 전서에는 어려운 한자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로스역』 폐기 이유로는 적절치 않았다. 평안도 사투리 표현이 많은 것은 『로스역』의 번역자들

18) “강명편”에서 해설하는 단어들은 밥땀네, 할네, 사뻏일, 넘년절, 유딧, 예루사렘, 성던, 사마라, 가니닉, 로마, 발이식, 사도기, 체사 등이고, 1884년 마태복음에는 피덜, 랍비, 사탄, 별시불 등의 용어가 추가되었다.

19) W. D. Reynolds, “The Contribution of the Bible Societies to the Christianization of Korea,” *The Korean Mission Field* 12:5 (1916), 127;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159.

이 대부분 서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그러나 약간의 고어체 표현을 포함해서 일부 단어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평안도 방언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중부 지방의 어휘로 개정한다면, 『로스역』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성서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장된 문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와 같은 것일 수 있다.

성경을 오이려 흐미 선디 이사야의 글을 주니 칩을 페터 그넢폴 보니 (1882년).

오이려 흐미 선지 이사야의 글노써 주거날 칩을 퍼 그넢폴 보니(1883년).

일르려 흐미 선지 이사야의 글노써 주거날 칩을 퍼 그넢폴 보니(1887년).

넙으려 흐매 이사야의 글노써 주거날 칩을 퍼 그 엽홀 보니(1890년, 아펜젤러).

이것은(눅 4:16-17)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기 직전의 상황으로, 전반부는 1882년 번역이 오히려 간결하다. 당시에 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1882년 역의 ‘오이려 흐미’를 오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의미 번역이나 문화 번역의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83년부터 1890년까지 ‘성경’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은 이상하다. 그런데 문체는 원문에도 없는 ‘그 옆을’ 보았다는 표현을 첨가한 것이다. 아펜젤러도 단순히 중부 지방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오역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듯하다. 책을 펴 들고 읽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림 언어를 사용한 경우를 ‘과장된 문체’라고 말할 수는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것이 『로스역』 폐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위에서 열거했던 “이러한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로스역』 신약 전서는 한글만 해독한 사람이면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는 책이었다.”²⁰⁾ 평가는 『로스역』을 좀 더 분석하고 연구

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리고 어쩌면 『로스역』 폐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5. 『로스역』의 저본

『로스역』의 문체를 비교한 결과 한문 성경이 번역의 저본이었다는 주장은²¹⁾ 부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레이놀즈의 지적처럼 한국인 번역자들이 외국어를 몰랐으며, 로스나 매킨타이어가 번역을 할 만큼 한국어에 능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성서공회는 한문 성경 가운데 대표자 역본(Delegates' Version)으로 알려진 『新約全書文理』(1852년)가 『로스역』의 저본이었다고 기술한다.²²⁾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번역 과정에 대한 로스의 진술은 또 다른 한문 성경이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음부터 나의 번역 방법은 한 한국 학자에 의해 중국어로부터 번역을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우리 번역자들은 문리(Wen-li)뿐만 아니라 만다린(Mandarin)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번역문들은 보통의 학자가 중국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의 정확한 개념을 보여주었다.²³⁾

20) 민영진,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고찰,” 『국역 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43.

21) 김영덕, “언해문체와 성서 번역체와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 (1969), 55-77. 이 글은 언해 문체와 초창기 성서의 번역체 사이의 연구로 대표적인 글이다. 민영진도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고찰,” 133에서 김영덕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

22)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25, 47; BFBS 성서 서지는 대표자 역본이 『로스역』 누가복음의 저본이라고 기록한다[T. H. Darlow and H. F. Moule, *Historical Catalogue of the Printed Editions of Holy Scripture 2*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63), 886].

23)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여기에서 언급된 문리는 『대표자역 문리 성경』이며, 만다린은 1872년 출판된 『官話新約全書(Peking Mandarin Version)』이다. 『대표자역 문리 성경』은 고급 문리(High Wenli)로 분류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래서 좀 더 쉬운 문체를 사용한 일반 문리(Low Wenli) 성경을 출판하는 한편, 특정 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한 관주(官話) 성경들이 번역되었다. 북경과 만주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된 『官話新約聖書』는 로스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서도 『로스역』의 저본으로 취급해야 한다.²⁴⁾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1882년 누가복음에 대해서만 맞는 주장이다.

로스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 번역자가 한문 성경에서 번역한 원고를 『개정역』 헬라어 신약 성서와 대조하면서 번역을 완성했다고 한다. 1881년 5월 출판된 『개정역』 헬라어와 영어 신약 성서는 옥스퍼드의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년) 교수가 로스에게 보내준 것으로, 번역이 완료되어 1881년 가을부터 조판 중이었던 누가복음(1882년 판)에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주기도문(눅 11:2-4)은 분명 『개정역』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

(1883); 김정현, 『라 요한-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210-211에서 재인용.

24) NBSS는 로스가 사용했던 1898년에 인쇄된 『官話新約聖書』를 보관하고 있다. Sung-il Choi, "John Ross(1842-1915)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126-127을 참조하라. 로스가 대영성서공회(Wm. Wright)에 보낸 1882년 3월 24일자 편지에 의하면 누가복음 번역 당시에도 『대표자역』과 『일반 문리』 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I employ two Corean literary men as translator and two as type setters. One of the translator work by himself, translating from the *Wunli* or literary style of the Chinese New Test; *Ross' Letter to the BFBS*, March 24, 1882,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16, BFBS, 3st.;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는 대영성서공회가 성서사업과 관련한 서신들을 편집해서 캠브리지 도서관 내에 위치한 성서공회 Archives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집이다. 현재 *Correspondence-Incoming* 1832-1908과 *Correspondence-Outgoing* 1832-1908이라는 제목으로 분류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개정역』 헬라어 성경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누가복음의 번역문은 4:4, 41; 9:55-56; 23:17, 38 등이다. 결국 1882년 누가복음에는 『개정역』 성경이 특정 본문에 한해 사용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역』 헬라어 성경은 옥스퍼드 판, 캠브리지 판, 웨스트코트-호르트 판으로 출판되었는데, 예수의 족보에 나타나는 인명의 음역을 대조한 결과 『로스역』에 사용한 것은 옥스퍼드 판이었던 것이 확실하다.²⁵⁾ 그렇다고 해서 로스는 전적으로 헬라어 성경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로스는 영어 성경보다 오히려 『개정역』 헬라어 성경을 표준 대본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²⁶⁾ 그 반대인 것 같다.

로스는 헬라어 성경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흠정역』과 『개정역』 영어 성경 모두에 의존했던 것 같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Greek(RV)	English(AV)	English(RV)
1:20	σιôπαó	dumb	to be silent
		버버리(1882)	잠잠 ^{ᄃᆞ} 여(1883, 1887)
1:64	eulogôn ton theon	praising God	blessing God
		하느님을 찬미 ^{ᄃᆞ} 여(1882, 1883, 1887)	
2:9	ephistêmi	to come upon	to stand by

25)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1),” 123-127; Sung-il Choi, “John Ross(1842-1915)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182-183;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1』, 54-55. 옥스퍼드 판의 저자는 E. Palmer[*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이다.

26) 로스의 1883년 1월 24일자 편지, John Ross, *Editorial Correspondance of the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 Inward* 17 (London: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0년 경), 329.

		강님 ^혀 (1882)	곶 ^티 셔셔(1883, 1887)
2:37	latreuó	to serve God	to worship
		성(섬)기더니(1882, 1883, 1887)	
6:16	Ioudan Iakóbou	Judas, the brother of James	Judas, the son of James
		야곱의 동 ^싱 유다(1882, 1883, 1887)	
6:37	apoluó	to forgive	to release
		샤한족(1882)	죄주지안 ^이 한족(1883, 1887)
10:30	léstès	thief	robber
		도적(1882)	강도(1883, 1887)
13:4	opheiletès	sinners	offenders
		죄를 너(나)나(1882, 1883, 1887)	
17:7	poimainó	feeding cattle	keeping sheep
		좁 ^싱 치다가(1882, 1883, 1887)	
21:8	egó eimi	I am Christ	I am he
		넌 ^가 키리스토라(1882)	넌 ^가 기라(1883, 1887)

위의 도표만으로 로스가 헬라이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정 어휘는 『개정역』 영어 성경을 따라 번역하지만, 대부분은 『흠정역』 영어 성경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로스역』 초역 단계에서 대본으로 사용한 것이 『흠정역』 영어 성경이었음을 뜻한다. 1:64, 2:37, 6:16, 13:4, 17:7 등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초판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나머지는 1883년 역 이후에는 『개정역』을 따른다. 눈에 띄는 변화는 21:8의 “넌가 키리스토라”는 1883년 이후에는 “넌가 기라”를 『개정역』 표현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본문들이 개정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로스가 어떤 저본에 더욱 의존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도표에 제시된 영어 문구들은 『흠정역』으로 1882년 역은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 이 본문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표 3>.

<표 3>

	1882년 누가복음	1882	1883	1887	1890
1:20	네 반드시 버버리되여 능히 말티못 하고 thou shalt be dumb, and not able to speak	AV	RV	RV	RV
1:28	네가 은 을 어덧다(90/여러 녀인 에 복이 있다)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AV	RV	RV	AV
1:37	하느님은 능티 못한빅업너니라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AV	RV	RV	RV
1:64	하느님을 찬미하여 말하니 praise God	AV	AV	AV	AV
2:9	주의 사자 강림하여 the Angel of Lord came upon them	AV	RV	RV	RV
2:37	금식하며...성기디니 served (God) with fastings	AV	AV	AV	AV
2:38	주를 감사하고 she gave thanks likewise unto the Lord	AV	AV	RV	RV
4:4	생략 (but by every word of God)	RV	RV	RV	RV
4:41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Thou art (Christ) the Son of God	RV	RV	RV	RV
5:39	묵은거시 더욱 도타 The old is better	AV	RV	RV	RV
6:10	손이 족시 나아 다른 손갓트니 his hand as restored whole as the other	AV	RV	RV	RV
6:16	야곱의 동생 the brother of James	AV	AV	AV	AV
6:37	사람을 사한즉 너의가 사할물 보고 forgive, and ye shall be forgiven	AV	RV	RV	RV
7:28	밥팀네를 범푸닌 요안니 John the Baptist	AV	RV	RV	RV
9:10	(사사라이 한 성에 가니) went aside privately into a desert place	AV	RV	RV	RV
9:35	이는 너의 사랑향년 아들이니 너의 들으라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AV	AV	RV	RV
9:54	넛적 이니아의 횡한빅 갓티 even as Elias did	AV	RV	RV	AV
9:55b -56	생략(90-골으샤되 네 막음 엇더함을 네 스스로 아 지못하노도다 대개 인주 니락매 인명을 멸코져 아 니코 이에 구원하고자 혼다 하고) (and said, Ye know not what manner spirit ye are of. For the Son of man is not come to destroy men's lives, but to save them.)	RV	RV	RV	AV
10:30,	도적	AV	RV	RV	RV

36					
	thieves (also 19:46, 22:52)				
10:39	예수의 발아래 안저	AV	AV	AV	AV
	sat at Jesus' feet				
11:2, 4	생략(90-하늘에 계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처럼 사하여도 일우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행되게 나오 게 함옵소서)	RV	RV	RV	AV
	(which art in heaven) ...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in earth) ... (but deliver us from evil)				
13:4	사람보담 더 죄를 너냐	AV	AV	AV	AV
	they were sinners above all men				
17:7	짐식 치다가	AV	AV	AV	AV
	feeding cattle				
17:36	두사람이 밭에 잇는데 한나는 뒤러가고 한나는 깃 티리라	AV	RV	RV	AV
	two men shall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21:8	내가 키리스토라	AV	RV	RV	RV
	I am Christ				
23:17	생략(90-대개 절기를 당함때 ... 반드시 혼 죄인을 놓는지라)	RV	RV	RV	AV
	(For of necessity he must release one unto them at the Feast)				
23:38	생략(90-히리니와 로마와 희백릭 말노)	RV	RV	RV	AV
	(in the letter of Greek, and Latin, and Hebrew)				

『흠정역』과 『개정역』의 표현이 뚜렷이 다른 본문들을 비교하면, 1882년 역은 거의 『흠정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1883년과 1887년 역은 『개정역』을 많이 사용한다. 1882년 역의 『흠정역』 표현이 한 번도 수정되지 않는 곳은 1:64, 6:16, 10:39, 13:4, 17:7 뿐이다. 2:37의 “금식하며...성기더니”라는 『흠정역』 표현은 1883년과 1887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참고로 비교한 1890년 역에서는 “served (God) with fastings”의 직역에 가까운 “금식하고...상대를 섬기더니”로 수정되었다. 이전 역에는 없던 신명을 번역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특이하지만, 유독 이곳에서만 신명을 ‘상대’로 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평안도 사투리를 제거하기 위한 1890년 역이 ‘상제’가 아닌 ‘상대’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개정역』에

의한 번역을 『흠정역』을 바꾸어 놓는 1890년 역은 1:28, 9:54, 9:55b-56, 11:2-4, 17:36, 23:17, 23:38이다. 11:2-4의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특성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흠정역』의 표현을 따른다. 예를 들어, 1:28의 경우 1882년 역의 문장 형태는 ‘among women’이 생략되었지만 『흠정역』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 1882년과 1887년 역은 『개정역』대로 고쳤지만, 1890년의 『아펜젤러역』은 다시 『흠정역』으로 돌아간다.

Hail, thou that art highly favoured,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 women(AV).

Hail, thou that art highly favoured, the Lord is with thee(RV).

은혜를 받은 자야 편안하라 주 너를 함께하여 네가 은통을 어뎠다 (1882년 역).

은혜를 바든 체네난 편안하라 주 너를 합기한다(1883년 역).

큰 은혜를 바든 자는 편안하라 주 너를 함씩한다(1887년 역).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편안하라 주 너를 흠씩히고 네가 여러 녀인 중 에 복이 있다(1890년 역).

9:54의 1883년과 1887년 역에서는 생략되었던 『흠정역』의 “넷 이리야의 힘흔바와 궂치하사이다”를 1890년 역은 되살린다. 또한 『로스역』에서는 생략되었던 9:55 하반절-56절의 “굴으샤디 네 마음 엇더흠을 네 스스로 아지 못하느도다 대개 인즈 니르매 인명을 멀코져 아니코 이에 구원하고자 한다”를 되살린다. 17:36의 경우도 1883년과 1887년 역에서 생략되었던 『흠정역』의 표현 “두사람이 맞회잇스매 하나는 드러가고 하나는 찌치리라”를 되살린다. 『로스역』에서는 생략되었던 23:17의 『흠정역』 표현 “대개 절귀를 당하매 방벽이 받드시 흠 죄인을 놓는지라”도 첨가한다. 23:38에서도 마찬가지로 “히리니와 로마와 희릭리 말노”를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1890년의 『아펜젤러역』은 단순한 『로스역』의 개정이 아니다. 『개정역』을 주요 저본으로 사용한 『로스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흠정역』 형태로 재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역』은 『흙정역』보다 『개정역』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흙정역』을 로스 번역의 저본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1882년 역은 대체로 『흙정역』을 저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역』에 충실하려는 노력 때문에 로스는 1882년도 판 요한복음에서 8:1-11과 1884년 판 마가복음에서 16:9-20을 생략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로스는 나중에 BFBS의 요청에 따라 이 본문들을 1887년 역에 다시 삽입하기도 했다.²⁷⁾ 로스가 『개정역』을 철저하게 따랐다는 또 다른 증거는 로스 사역의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보면 확실하다. 『흙정역』을 저본으로 한 『官話新約聖書』의 것과 『로스 사역』은 그 차이가 확연하다.

我們在天上的父，願人都尊你的名為聖，願你的國降臨，願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
我們需用的飲食，日日賜與我們，赦免我們的罪，因為我們饒恕得罪我們的人，
不叫我們遇見試探，救我們脫離凶惡(官話新約聖書).

父乎父名聖國臨 我(所) 用糧日日賜之 赦我罪因我亦赦負我者 勿導我於迷惑焉(로스 사역).

『로스 사역』의 주기도문은 실제로 한국인 번역자의 것이다. 로스는 한글 성서 번역을 모두 마친 후 자신의 번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인 번역자를 시켜 『로스역』 누가복음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했다. 로스는 이 성서가 중국인들에게 『쉬운 문리(easy Wenli)]나 『관화 성경』보다 훨씬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BFBS에 출판을 요청하기도 했다.²⁸⁾ 『개정역』 헬라이어 원문은 물론 영어 성경의 원문에 충실했

27) 로스가 대영성서공회에 1883년 7월 22일에 보낸 편지, John Ross,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18, 152 참조.

28) BFBS 고문서실에 보관된 이 성서의 필사본은 “<Chinese low Wenli> from

기 때문에 자신의 번역을 우수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로스가 한국인을 시켜 번역한 주기도문도 『개정역』 형태를 취한다. 로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중국어에 대한 로스의 능력은 높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897년에 상해에서 열린 성서 주석 협회는 로스에게 옹기, 이사야 절반, 마태복음 절반, 야고보서 및 서신들의 주석의 집필을 맡겼으며, 후에 이것들은 중국어 성서 주석으로 출판되었다.²⁹⁾

6. 『로스역』 재평가

『로스역』 신약 성서는 분명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로스역』의 유용성 문제는 시험적인 개정 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1887년 2월 7일 서울에 있던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 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를 조직하고 상임 성서 위원회, 번역 위원회, 개정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를 구성했던 선교사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튼, 헤론으로 이들이 당시에 성서를 번역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로스역』이 완간되기 이전에 독자적인 성서 번역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로스역』 성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초 이수정이 번역하여 출판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를 들고 입국했으며, 그들은 1887년에 『마가의전한복음서언히』를 출판하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이가 번역한 성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번역한 성서를 갖고 싶어 했다고 보아야 한다.³⁰⁾ 이런

Corean by Ross 1887”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로스의 1890년 11월 22일 편지에 의하면, 한글 번역에서 중국어로 옮긴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고 한다(John Ross,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27, 78).

29) 김정현, 『라 요한-한국의 첫 선교사』, 57.

30)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에서도 언더우드의 “번역의 명예를 차지하

점에서 그들이 제기했던 『로스역』의 문제점은 새로운 번역의 당위성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역』 출판과 반포로 한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BFBS와, 『이수정역』과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성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미국성서공회(ABS: the American Bible Society), 『로스역』 첫 두 권의 성서를 출판했던 NBSS의 지원과 협력이었다. 특히 『로스역』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던 BFBS는 새 번역을 주장하는 선교사들의 편에 선 ABS와 『로스역』을 개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시작된 『로스역』의 개정은 아펜젤러가 진행했는데, 그는 『로스역』을 개정하여 1890년에 “누가복음”과 “로마서(保羅達羅馬人書)”를 출판하였다. 누가복음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평안도 사투리를 바로 잡았고, 훨씬 세련된 활자로 인쇄하여 글자를 해독하는 어려움을 제거했지만 유용성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 일반 평민을 위해 되도록 고유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했던 로스의 번역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곳에서 유식한 대중이 이해하기 좋은 한자어로 개정하여 특정 부분은 원 『로스역』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기도 했다. BFBS와 ABS가 한 완전 폐기 결정은 1893년 5월 상임 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아펜젤러의 누가복음 출판 당시 BFBS와 ABS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로스역』의 개정 작업은 단지 폐기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1890년 이후에는 로스와 BFBS 사이에 그 어떤 서신 교환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³¹⁾ 로스 자신도 BFBS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한국어 성서 번역은 한문까지

려는 사업주의적 성격을 띤 야망”을 지적할 정도로 성서 번역과 관련된 언더우드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한다(212-213). 『로스역』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211-223을 참조하라.

- 31) 로스는 BFBS가 『로스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의뢰했던 달만(Dr. Dalman)의 평가와 관련한 장문의 편지(1890. 11. 4.)와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담은 편지(1890. 11. 22.)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잘 아는 사람이 번역해야 한다는 로스의 견해는 한국에서 새 번역을 추진하던 미국 선교사들을 향한 우려로 보인다.³²⁾

『로스역』을 향한 비판이 수정 가능한 것들이었다면, 『로스역』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원인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좀 더 문헌 연구를 해야겠지만, 한국에서 성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서공회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측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에 BFBS와 ABS와 NBSS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을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에서(심지어 필리핀에서도) 각 성서공회의 지부 설치와 사업 지역 설정 협상이 성서 번역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FBS는 ABS에 새로운 한국어 성서 번역과 출판권을 허락하는 대신에 사업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NBSS도 일본에서의 성서 출판권과 사업권을 빌미로 ABS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로스역』은 성서공회와 선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인 희생물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 교리적인 요인이었다. 이것은 중국어 성경의 번역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1852년 『대표자역 문리 성경』이 출판되었으나, 이것은 완전한 『대표자역』이 아니었다. 신명에서 “上帝”와 “神”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상제역』과 『신역』을 모두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서공회 중심으로 본다면 BFBS는 『상제역』을 ABS는 『신역』을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영국 선교사들은 『상제역』을(단, 영국 성공회는 천주를 선호했다.), 미국 선교사들은 『신역』을 따랐다. 『로스역』은 『대표자역』의 상제본을 저본으로 했으며, 미국 선교사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로스는 『개정역』 헬라어 성경이 출판되자마자 그것을 주요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까지 『흙정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던 미국 선교사들에게 『로스역』은 마치 ‘이단 역’으로 보였을 것이다.

32) 로스의 1890년 11월 22일자 편지, John Ross,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27.

1938년에 출판된 개역 신약 성서의 저본이 『개정역』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로스역』 신약 성서 출판 이후 50년 만에 『개정역』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역』을 ‘애매모호한 번역’이라고 비판했던 상황은 1993년에 출판된 『표준』에 대한 거센 비난과 거부 때문에 2004년에 가서야 『새번역』을 출판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의 상황과도 흡사한 것이다.

BFBS가 『로스역』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평가를 의뢰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말란(Dr. Malan)과 달만의 견해는 로스의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³³⁾ 먼저 말란은 『로스역』의 주기도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는 이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한국어의 동사 부분은 교정해야 할 단순한 사항이라고 답한다. 주기도문과 관련한 논쟁은 교리적, 신학적 입장의 반영으로 성서 번역의 근본으로 확대된다. 즉, 달만은 성서 번역을 위한 대표적 저본은 『개정역』이 아닌 『흙정역』(*Textus Receptus*)이어야 하는데, 『로스역』은 『개정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스역』은 개정을 시도할 필요조차 없는 성경으로 평가되고 말았다. 그래서 로스는 BFBS에 『개정역』의 장점을 장황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역 성경이 배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로스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관용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과 부정확한 번역문 목록을(아마도 아펜젤러에게) 보내 달라는 편지를 3개월 전에 보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언급하는 점이다. 자신의 번역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개정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아펜젤러는 로스의 누가복음을 단순히 수정한 서울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흙정역』 표현들을 첨가하여 개정하였다. 로스는 이런 것을 “교리의 첨가”라

33) 로스의 1890년 11월 4일자 편지, John Ross,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27.

고 생각했다.

한글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스역』 개정 작업을 시작한 아펜젤러는 로스가 1883년 역에서 서울말로 고친 표현을 다시 평안도 사투리로 수정할 정도로 한글에 정통하지 못했다.³⁴⁾ 아펜젤러도 로스처럼 한국인 번역자의 도움으로 개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아펜젤러와 그의 한국인 번역자는 『로스역』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특정 성서 개념의 한국적 이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초기의 교회 형성은 물론 1890년대의 여러 성서 번역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1906년 공인 『성경전서』 신약 성서의 번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중국어 성경 번역 당시 문제가 되었던 신명과 함께 ‘성령’이란 용어의 논쟁도 심각하지만, 『로스역』이 채택한 ‘성령’이 이후 국역 성서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란 신명 채택과 함께³⁵⁾ 국역 성서 번역은 물론 한국 개신교 역사에 위대한 공헌이었다고 하겠다. 이제 『로스역』은 한국어 발전 관점만 아니라, 국역 성서 번역과 초기 한국 개신교 형성에 끼친 영향 등은 재평가되고 재조명되어야 한다.

34) 로스가 1888년 5월 26일 아펜젤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로스가 1887년 9월 말에 상임 성서위원회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심양으로 돌아올 때 이미 아펜젤러의 누가복음 개정 초역 원고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에서 로스는 자신이 버린 ‘의주 철자’를 아펜젤러가 다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성서 번역상의 원리들을 제안한다(이 편지 전문은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1』, 214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새로운 번역에 대한 합의를 하고 상임 성서위원회가 조직된 지 6개월 만에 번역 원고의 초고를 준비하여 로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로스역』에 대한 개정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개정 작업은 전적으로 BFBS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5) 참고로 로스가 사용했다는 『官話新約聖書』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聖神”으로 표기되었다.

7. 마치는 말

BFBS의 통계에 의하면 1882년의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1887년 완간되어 배포된 로스의 신약 성서는 이때까지 67,040권이며, 『로스역』의 무용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사용을 꺼려하던 1889-1890년에도 11,000권이 출판되었다. BFBS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는 독단적으로 1892년에 마태복음 5,000권을 출판했으며, 1893년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등 11,000권의 단권 성경이 출판되었다. 총 94,040권이 출판되어 만주와 일본, 국내에 반포된 로스의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초석이었으며, 한국 교회를 성서에 의한 성서의 교회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1960년 초 대한성서공회가 『새번역 신약 전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BFBS 측 위원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던 노대영(Richard Rutt) 신부는 “이제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최고의 작품은 『로스역』”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로스역』은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³⁶⁾ 그는 『로스역』이 되도록 고유한 한글을 골라 사용하고 한문 중심의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택했기 때문에 예배 때 큰 목소리로 낭독하기에 좋은 성경이라고 본 것이다. 『로스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려운 한자들을 사용한 『성경전서』(1906/1911년)와 『개역』에 비하면 더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6) Rutt, Richard,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of the Korean Bible,” *Technical Papers for the Bible Translator* 15:2 (1964), 82.

<주요어>

로스역 신약 성서, 로스역 저본, 예수성교전서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Key words>

Ross' Version, Source Texts of Ross' Version, St. Luke of Ross' Version, Lord's Prayer of St. Luke

* 접수일 2010년 9월 30일, 수정일 2010년 10월 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0월 6일

참고문헌

- 『개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1956.
- 『官話新約聖書 路加福音』, Northern Mandarin-Peking 역, 상해: 미국성서공회, 1898; org. ed. 1865.
- 『路加福音』, 존 로스 역, 1887(출판되지 않은 필사본, 대영성서공회의 Archies에 소장되어 있다.).
- 『예수성교문답』, 심양: 문광서원, 1881.
- 『예수성교요령』, 심양: 문광서원, 1881.
-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로스, 매킨타이어 역, 심양: 문광서원, 1882.
-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로스 역, 심양: 문광서원, 1883.
- 『예수성교전서누가복음』, 심양: 문광서원, 1887.
- 『누가복음전』, 아펜젤러 역, 서울: 삼문 출판소, 1890.
- New Testament: Revised Ver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 김영덕, “언해문체와 성서 번역체와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 (1969), 55-77.
- 김정현, 『라 요한-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민영진, 『국역 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 서정수,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이덕주,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특히 성서 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 (1992).
- 최태용, “초기 번역 성서 연구 II,”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

- 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Choi, Sung-il, “John Ross(1842-1915)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h. 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 Darlow T. H. and H. F. Moule, *Historical Catalogue of the Printed Editions of Holy Scripture 2*,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63.
- Palmer, E.,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 Reynolds, W. D., “The Contribution of the Bible Societies to the Christianization of Korea,” *Korean Mission Field* 12:5 (1916).
- Ross John, *Corean Primer: being Lessons in Corean on All Ordinary Subjects, Transliterat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ndarin Primer, by the Same Autho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 Ross, John, *Mandarin Primer: being Easy Lessons for Beginners, Transliterated to the European Mode of Using Roman Letter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6.
- Ross, John,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 Ross, John, *Editorial Correspondence of the BFBS-Inward*, London: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0(추정).
- Ross, John, *History of Korea*, Paisley: J.&R. Parlane, 1879.
- Rutt, Richard,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of the Korean Bible,” *Technical Papers for the Bible Translator* 15:2 (1964), 82.

<초록>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최성일

(한신대학교 교수)

『로스역』 신약 성서(1887년)는 1906년 『성경전서』 신약 성서가 출판되기 전까지 한국 개신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일한 성서였다. 『로스역』 중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 1882년에 출판되었으며, 다음 해에 약간 개정되어 재판되었으며, 또 다른 개정 작업을 거쳐 『로스역』에 합본되었다. 그러나 『로스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선교사들은 『로스역』 신약 성서가 완간되던 해인 1887년에 새로운 성서의 번역을 결정한다. 새로운 번역에 착수하기 전 그들은 『로스역』의 유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로스역』의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개정해서 1890년에 출판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로스역』의 번역과 개정 작업을 조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로스역』의 평안도 방언, 어려운 한자어,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오역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없으며 개정 작업도 시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성서 번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로스역』의 결함이 『로스역』 폐기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성서공회들 사이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로스역』의 저본이 『흠정역』이 아니라 『개정역』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로스는 초기 번역에서 주로 『대표자역 문리 성서』와 『흠정역』 헬라이어 성서를 저본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881년에 『개정역』 신약

성서가 출판되자마자, 로스는 그것들을 번역과 개정의 저본으로 사용했다. 그 당시에 한국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은 『개정역』 신약 성서를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로스역』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and Source Texts of *the Ross' Version*

Prof., Sung-il Choi
(Hanshin University)

Ross'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was the only Scripture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06. The first book of *Ross' Version* to be published was *St. Luke*. first published in 1882, it was revised slightly the following year and underwent another revision to be republished with other Scriptures in 1887. Due to some problems of this Version, however, missionaries in Korea decided to translate a completely new version of the Bible in 1887, the same year *Ross' Version* was completed. Before starting anew, a revision of *the Ross' Version* was done first in order to test its usefulness which resulted in a revised publication of *St. Luke* and *Romans* in 1890. Therefore *St. Luke*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to survey process of translation and revision of *Ross' Version*. After this elective revision, missionaries concluded that *Ross' Version* had no useful value because of its provincial dialects,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and ambiguous renderings or mistranslation, and that its revision would waste their time and instead started a completely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However, the reason

to abandon *Ross' Version* was not because of its defects. It was a political decision made by bible societies that sought to gain the upper hand in bible work in Korea. Moreover, it was because the source texts of *Ross' Version* were not *the Authorized Version* but *the Revised Version*. Ross used mainly the *Delegates' Wenli* in Chinese and the *Authorized Version of Greek (Textus Receptus)* as the source texts in his initial translation. But as soon as *the Revised Version of Greek and English* was published in 1881, he used them as the main sources of his translation and revision. At that time, because conservative missionaries in Korea did not accept *the Revised Version of Greek and English*, neither could *Ross' version* be adopted.